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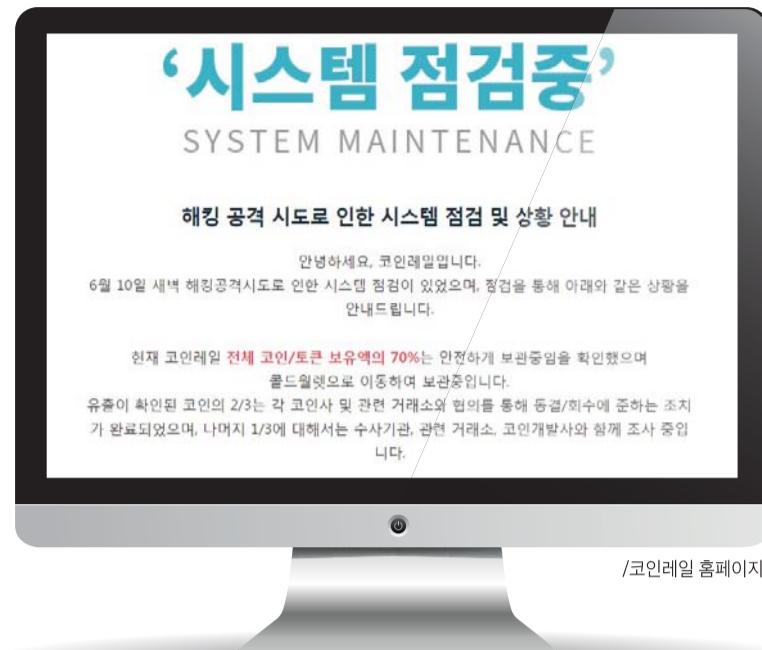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코인레일 400억 피해

해킹피해 역대 최대규모 추산
펀디엑스 등 9종 36억개 인출
보유액 70% 콜드월렛 보관중
관련법안 4개 논의안돼 '문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해킹으로 수백 억원대의 피해를 냈다. 벌써 1년 사이 야피존, 유빗에 이은 세번째 해킹사고다. 정부가 규제에 손놓고 있는 사이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인 4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복되는 해킹사고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폭락세를 면치 못했다.

코인레일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일 새벽 해킹공격 시도로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거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코인레일은 코인마켓캡 1일 거래량 기준 전세계 90위, 국내 7위 거래소다.



전일 새벽 1시경 코인레일이 보유 중인 계좌에서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9종 36억개 가량이 40분에 걸쳐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레일 측은 “유출이 확인된 코인의

3분의 2는 각 코인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 회수에 준하는 조치가 완료됐다”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선 수사기관, 관련 거래소, 코인개발사와 함께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코인레일 전체 코인·토Ken 보유액의 70%는 안전하게 보관 중임을 확인했으며,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콜드월렛으로 이동해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레일은 유출된 코인·토Ken의 정확한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약 4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인레일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야피존이 55억 원 규모, 야피존이 상호를 바꾼 유빗이 지난해 12월 17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도난당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화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투자자 보호 역시 최소한의 방어벽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유빗은 해킹 사고로 파산 신청을 한 뒤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보상한다고 했지만 보장 한도는 피해 규모 17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30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보험사가 거절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했다.

코인레일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공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지 않았다. 매출과 이용자 규모에 따라 상위 4개 업체인 코인원, 빗썸, 업비트, 코빗만이 올해 ISMS 인증 의무대상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안은 모두 4개가 계류 중이지만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발생한 해킹 사고에 가상화폐 시세는 급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800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50만원선으로 내려앉았다.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1월 2500만원선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이더리움과 리플, 이오스 등 다른 가상화폐도 일제히 10% 안팎으로 폭락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난 8일 ‘특별제안 3·6·9 현장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에서 이대훈 NH농협은행장(가운데)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찰칵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특별제안 현장아이디어 공모’ 시상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시 종로구 본점에서 ‘특별제안 3·6·9 현장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모는 전 직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해 은행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실시됐고, 3월·6월·9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특정 테마를 정해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번 3월에 실시된 현장아이디어 공모

는 ‘농협은행 미래 먹거리 신사업 발굴’을 테마로 3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공모 결과 최종 4명의 우수 제안자를 선발했으며, 경기 월평균지점 송성호 과장

보가 ‘농협은행 독자 동영상 컨텐츠 플랫폼 개발’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달러전용 적립예금 신상품 출시

신한은행은 환테크 기능에 사용 편의성까지 높인 달러전용(USD) 적립예금 신상품 ‘달러 More 환테크 적립예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달러 More 환테크 적립예금’은 달러를 적립할 때 최대 70% 환율우대가 적용되며 적립된 달러를 사용할 땐 체인지업 체크카드로 해외가맹점에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달러 More 환테크 적립예금’은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할 경우와 달리 원화로 환전할 경우 모두 기본 환율우대 50%가 적용되며 체인지업 체크카드 발급(보유) 시 10%, 외화 체인지업 예금에 연결해 만기자동해지 신청 시 10% 추가우대가 적용돼 최대 70%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또한 자동매입 환테크 기능도 갖추고 있어 미리 정한 상한환율을 초과하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자동이체가 일시 정지되며 하한환율 미만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고객이 미리 정한 배수 단위로 추가적립이 가능하다.

만기된 적립예금을 외화 체인지업 예금으로 옮겨 해외결제 특화카드인 신한체인지업 체크카드를 연결해 해외 가맹점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번 ‘달러 More 환테크 적립예금’ 출시 기념으로 6월 말까지 10달러(최소가입금액) 이상 신규한 고객 전원에게 SPC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왼쪽부터 1978년 국내 최초 Visa 신용카드, 하나카드 40주년 기념 1Q Daily+ Visa 한정판 디자인 카드



/하나카드

하나카드 40년 전 신용카드 1000매 한정판매

하나카드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카드 디자인과 동일한 ‘40주년 기념 비자 한정판 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외환카드는 1978년 비자카드로부터 신용카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4월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외환카드는 지난 2014년 하나카드와 합병했으며, 올해 4월 신용카드 사업 4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하나카드는 ‘1Q Daily+’ 카드 혜택에 우리나라 최초 신용카

드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 ‘1Q Daily+ Visa’ 한정판 디자인 카드를 출시한다.

이 카드는 오는 8월 말까지 1000매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또 하나카드 ‘1Q Daily+ Visa’ 한정판 디자인 카드로 이벤트 기간 내 1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샘소나이트 여행 용기방을 증정하고, 이벤트 기간 내 1회 이상 사용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2매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월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부문의 거액 신규 연체 발생으로 연체율 상승폭이 커지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1면 ‘중금리대출 확대…’서 계속

금융권 저신용자 소외 대부업 이용 부추길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불량률은 1~6등급 0.5~1.93%, 7~10등급 6.46%~34.79%로 저신용자 불량률이 1~6등급 신용자보다 최대 30배 이상 높았다.

문제는 앞선 금융권의 저신용자 소외 현상이 고금리 대부업 개업의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의 주 신용등급은 7~10등급으로 119만 1000명(2017년)에 달했다. 저신용자 대출액 비중이 확대되지 않는 한 고금리 대부업체의 주 이용자는 또다시 저신용자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원가가 높아 금리를 낮춰 저신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대부업체의 주장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